

「夜來者」說話의 小說的 變容

黃 溟 江*

I. 들어가는 글

『三國遺事』 卷 2 의 ‘後百濟 甄萱’조에 ‘古記’를 인용한, 說話的인 記事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소개되어 있다.

A. 옛날에 어떤 부자가 光州 北村에 살았는데 그에게는 용모가 단정한 딸이 하나 있었다. 한번은 아비에게 이르기를 ‘매양 보라빛 옷차림의 사나이가 잠자리에 와서 관계합니다.’하였다. 아비는 이르기를 ‘너는 긴 실에 바늘을 꿰어 그 옷에 찢려 두어라.’고 하였다. 딸은 아버지의 말대로 하였다. 밝은 날에 실을 따라 북쪽 담장 밑에 이르니, 커다란 지렁이의 허리에 바늘이 찢려 있었다. 그 뒤에 이로 말미암아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다. 열다섯 살이 되자, 스스로 甄萱이라 일컬었다. 景福 원년 임자(892)에 王을 일컫고, 完山郡에 도읍을 세우고 43년을 다스렸다.(筆者 譯)¹⁾

위의 기사 내용은 이른바 ‘夜來者 說話’²⁾로 알려진 後百濟王 甄萱의 出生譚이다. 이와 비슷한 설화가 일본의 『古事記』 中卷, ‘崇神天皇’조에 있다.

檀國大

1) 以下の 引用文中 漢文과 英文 原典은 筆者 譯文인 경우 끝에 *표로 표시하고 따로이 ‘筆者 譯’이라 밝히지 않는다. *표시가 없는 인용문은 원전 그대로이거나 縮約이다. 縮約의 경우는 註에서 cf. 표시를 하였다.

2) ‘夜來者-’의 용어는 張德順의 『韓國說話文學研究』(서울大出版部, 1978, p.139f.)에서 썼다. 이 용어는 정체불명의 영적 존재의 來寢의 때를 ‘밤’으로 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없지 않다. 本稿에서는 慣用을 좇아 ‘夜來者-’로 썼으나, 論旨의 展開에서는 이에 구속받지 않는다.

B. 玉依毘賣는 용모가 단정하였다. 容貌와 威儀가 당대에 비길 데 없는 어떤 壯夫가 夜半에 문득 와서, 서로 느낌이 있어 관계하는 가운데 얼마 안있어 여인은 잉태하였다. 부모가 그 잉태한 것을 수상하게 여겨서 물었다. ‘너는 제 혼자 잉태하였다. 지아비 없이 어떻게 잉태하였느냐?’라고 하니, 딸은 대답하여 말하기를, ‘수려하게 생긴 사나이가, 그 성명은 알 수 없사오나, 저녁마다 찾아와 같이 지내는 사이에 어느덧 잉태하게 되었습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부모는 그 사람을 알고자 하여 딸에게 분부하여 말했다. ‘赤土를 바닥 앞에 뿌리고, 실타래의 실을 바늘에 꿰어 그 사나이의 옷자락에 찢러 두어라.’ 딸이 분부대로 하고, 다음날 아침에 보니, 바늘 꿰인 실은 문의 자물쇠 구멍을 통하여 밖으로 나갔는데, 실타래에 남은 실은 세 돌림(三勾 또는 三輪)뿐이었다. 이에 곧 그가 자물쇠 구멍으로 빠져 나간 것을 알고 실을 따라 찾아가 보니 美和山에 이르러 神社에서 머물렀다. 그리하여 그(意富多多泥古)가 神(뱀)의 자식임을 알았다. 실타래의 실이 세 돌림 남았다고 하여 그 땅을 ‘美和’라고 부른다.*

위의 活玉依毘賣의 기사는 崇神天皇 때 大物主大神을 奉祀하는 神主로 삼은 意富多多泥古가 大物主大神의 후손 즉 ‘神의 자식’임을 밝히려는 의도에서 서술된 내용이다. 앞의 甄萱의 기사에 비하여 더러 부연된 부분이 있기는 하나, ‘夜來者 說話’로서 기본적인 틀은 거의 일치하고 있다. 즉,

- 1) 밤에 여인(처녀)에게 정체 불명의 사나이가 찾아와 동침한다.
- 2) 사나이의 正體를 探索한 결과 非人間(異類, 神)임이 밝혀진다.
- 3) 그 결과로 여인은 잉태하여 非常人(英雄, 神)을 출생한다.

그 밖에 다른 모티프도 개입할 수 있으나, 기본적인 틀은 위의 모티프로 이루어진다고 일단 가정하고 논의를 전개하려고 한다. 앞으로의 고찰을 통해 밝혀질 것이나, 위의 모티프도 여러모로 변용되고, 또 설화에 따라서는 缺落하는 모티프도 있어 실제로 ‘夜來者’型的 原初型을 어느 것이라 쉽게 단정하기는 어렵지 않은가 한다. 本稿는 夜來者型的 최소의 기본단위를 위와 같이 假設하고, 그것이 添加, 脫落, 變形, 修正

등을 포함한, 여러가지 展開過程에서 치러야 했던 敘事的 變容과 小說 形象과의 內的 交涉關係를 살펴 보려고 한다. 종전의 연구에서 주목을 끄는 것으로, 夜來者型 說話의 主題 논의와 관련하여 夜來者 說話의 典型을 논증한 張德順, 周邊民族들의 夜來者型 敘事形態를 광범위하게 비교, 고찰하여 그 傳來의 系統을 밝히려고 한 金和經, 夜來者 神話가 馬韓의 神話였을 가능성을 여러 측면에서 확인하려고 한 徐大錫의 업적을 들 수 있다. 장덕순은 아래자 설화의 주제를 ‘非常人物이나 神의 誕生’으로 보고, 이를 기준으로 삼아 典型 與否를 논하였다.³⁾ 그러나, 아래자형을 위의 單一 主題로만 논단하는 데 따르는 문제를看過하지 않았는가 싶다. 김화경의 ‘夜來者說話 傳播 經路’의 推定⁴⁾은 매우 의욕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설화를 굳이 傳播에 의한 傳達物로밖에 보지 않아서는 안되는 이유가 끝내 釋然하게 밝혀지지 않는 것이 아쉽다. 서대석은 夜來者 說話를 水父—地母型 神話로 보고, 그것의 祭儀的 性格을 抽象하여 馬韓의 神話로 溯源하는 논의를 폈다.⁵⁾ 그는 夜來者 神話와의 關係에서 水父—地母神 信仰의 北方族이 南下하여 馬韓의 主體가 되고, 百濟 末期의 餘氏 王系도 馬韓系라고 하는 데까지 논의를 전개하였는데,⁶⁾ 神話 解釋을 통해 史實을 再構하는 데는 그나름의 限界가 있지 않아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든다.

본고는 위의 업적들로부터 많은 示唆을 받은 한편 김화경, 서대석의 두 업적으로부터는 비교적 풍부하고 정제된 자료들에 접할 수 있어 크게 도움 받았음을 밝혀 둔다.

3) cf. 張德順, 「夜來者傳說考」(국어국문학회, 『국어국문학』, 49·50호, 1970), p. 266.

4) 金和經, 「百濟文化와 夜來者說話의 研究」, (『百濟論叢』, 1輯, 百濟文化開發研究院, 1985), pp. 237—240.

5) cf. 徐大錫 「百濟神話 研究」, (『百濟論叢』, 1輯, 百濟文化開發研究院, 1985), pp. 48—53.

Ⅱ. 說話的 모티프의 考察

(1) 非人間的 存在와의 交婚

인간이 異類와 交婚하는 形象은 고대 서사형태에서 흔히 대할 수 있다. 이와 같은 異類交婚觀의 배경이 되고 있는 고대인의 意識은 妊娠에 대한 고대인 내지 원시인의 사고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들은 受胎와 妊娠을 단순한 생리적 원인 이상의, 靈的인 원인으로 이해하고 있다. 일찍이 Trobriand 諸島의 原住民의 생활을 조사, 보고한 바 있는 Malinowski는 *The Father in Primitive Psychology*에서 ‘원시인에게는 〈아버지〉 관념이 없으며, 임신하고 출산하는 것은 精靈的인 힘이 그 원인으로 인정되고 있다.’⁷⁾고 하였다. Jung은 交尾로 임신하는 동물의 경우를 이미 알고 있는 원시민족이 인간에 대해서만은 그것을 부정하고 있는 것은 그것을 몰라서가 아니라, 부정되고 있는 것이라고 하고, 그 이유를 具體主義에서 벗어난 神話的 說明을 즐기는 까닭으로 설명하였다.⁸⁾

C. 高辛氏의 妃인 姜原이 커다란, 사람 발자국을 보고, 이를 밟았더니 사람인 듯한 衾새가 느껴지며 잉태하여 后稷을 낳았다.⁹⁾ *

D. 그 여자는 품안에 해가 비침으로 인하여 임신하여 神雀 4년 癸亥 4월에 朱蒙을 낳았다.¹⁰⁾ *

6) cf. *Ibid.*, p. 48

7) B. Malinowski, *Parenthood—The Basis of Social Structure*, London, 1930(trans. 青山道夫·有地亨 『未開家族の論理と心理』, 京都, 1960, p. 20)

8) cf. 黃湜江 「古代敍事文學에 대한 原型的 試考」(『韓國敍事文學研究』, 서울, 1972), p. 18

8) C. G. Jung, *Zur Phänomenologie des Geistes im Märchen*, 1945 (trans. 西丸四方 『人間心理と教育』, 東京, 1956, p. 156)

9) 列子, 天瑞 1

10) 東國李相國集, 卷3, 東明王篇

E. 부인이 할일없이 입을 벌이때 룡조[가 몸을 흔들더니 붉은 기운이 되어 입으 들어 가거늘 부인이 삼키고 보니… (중략)… 과연 그달부터 태 괴잇서 십삭이 참애 일개 옥동을 생하니… (후략)¹¹⁾

F. 서울 萬善北里의 寡女가 지아비 없이 잉태하여 아이를 낳았다. 나이 열 두 살이 되어도 말도 앓고, 일어나지도 앓았다. 그래서 ‘뱀동’(蛇童)이라 이름하였다.¹²⁾ *

위의 몇 가지 사례에서 보듯 여인의 임신은 靈적인 存在(神, 精靈… 등)가 여인의 몸에 접촉 내지 들어감으로써 일어나는 변화이며, 여인에게 접근하는 영적 존재가 사람(남자) 모양의 ‘性關係’를 가짐으로써 잉태되는 것은 아니었다. 靈存在가 女體에 접촉 내지 投入되는 部位도 生殖部位에 국한되지 않는다. 頭髮, 머리, 눈, 입, 품(가슴), 배, 음부, 발, 손… 등 여러 部位이다.¹³⁾ Malinowski는 영 존재의 女體 移入의 경로에 대하여 頭部로부터 하강하는 것과 腔部로부터(per vaginam) 상승하는 두 가지를 들고 있다. 전자는 생식부위가 아니며, 후자는 직접적인 생식부위이다.

G. 옛날… (중략)… 신라국에 阿具奴摩라고 하는 늬이 있었다. 늬 언저리에서 어떤 천한 여인이 낮잠을 자고 있었다. 이 때 해가 무지개모양 빛을 발하며 그녀의 음부 위를 비추었다. 우연히 이를 본, 한 천한 남자가 수상하게 생각하여 늘상 여인의 하는 일을 살피고 있었던 바 여인은 그런 일이 있을 때로부터 임신하여 붉은 옥을 낳았다. 남자는 그 옥을 청하여 얻어서 싸 가지고 늘 허리에 차고 다녔다.… (후략)¹⁴⁾ *

위의 阿具奴摩 늬의 기사는 직접 생식부위 즉 腔部로부터 영적 존재(태양신)가 여체에 이입하여 잉태하는 형상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직접적인 남녀의 성관계로 나타나 있지는 않다.

11) 금방울전, 世昌書館, p. 1f.

12) 三國遺事, 卷4, 蛇福不言.

13) cf. 黃滄江 『韓國敍事文學研究』, 서울, 1972, pp. 18-21.

H. 松京에서 10여리에 德積山이 있는데, 산 위에 崔瑩장군의 祠堂이 있다. … (중략) … 서쪽 사당 곁에 침실이 있어 민간의 처녀를 골라서 사당을 모시게 하는데, 늙고 병든 이는 젊고 예쁜 여자로 바꾸면서 300여년을 내려온다. 사당을 모시는 여자가 말하기를, 밤이면 神靈이 降臨하여 살아있는 사람과 같이 성관계를 가진다고 했다.¹⁵⁾ *

위의 H.는 영적 존재가 여인에게 접근하여 인간과 다름없는 性關係를 가지는데, 이런 形象은 후대적 변용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 결과로서의 임신 여부는 밝히지 않았다.¹⁶⁾ 이상의 고찰에서 보건대 이 부류의 설화들은 비인간의 영적 존재가 여인에게 접근하여 어떤 의미의 남성적 작용을 한다는 것이며, 그 결과는 대개 잉태하여 출산으로 연결되나, 영적 존재의 남성적 작용은 앞에서 보듯 여러 모양으로 이루어지며, 그 결과로 오는 잉태와 출산은 필수적이 아니며, 설화에서는 잉태와 출산이 가끔 간과되거나 유보되는 경우도 꽤 있다. 영적 존재에 관하여 그 實體를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즉 긍정적인 영적 존재와 부정적인 영적 존재이다. 전자로는 天神, 地神, 山神, 龍神, 蛇神 등이 있고, 후자로는 惡神(疫神), 惡靈(木怪, 物怪) 등이 있다. 그러나 이들은 흔히 사람(남자)의 모양을 하고 여인에게 접근한다. 이들이 여인에게 접근하는 時空은 대개 밤의 여인만의 密室이다. 그러나, 이것은 절대적이 아니다. 요컨대 영적 존재가 여인에게 성적 접근

14) 古事記, 中卷, 品陀和氣命(應神天皇).

15) 五洲衍文長箋散藁, 卷26, 巫覡辨證說.

16) 女人의 神婚의 俗은 비교적 역사가 오래다. 處女 마리아도 婚前에 聖靈으로 잉태하여 예수를 낳았다.(마태 1: 18-23) 神廟에서 婚前 처녀의 神淫의 俗은 세계 각 민족간에 널리 분포되어 있었으며, 지금도 그와 같은 민속이 형식적이기는 하나, 그 흔적을 남기고 있다. 일본 長崎縣 北松浦郡 平戶의 稗田에서는 결혼 전야 신부는 친모와 기혼 부인에게 이끌려 鄉社인 緣岡神社에 가서 神體라고 하는 男根狀의 木棒으로 破瓜의 儀式을 지낸다. 지금은 신부의 股間에 대는 정도로 형식화되었으나, 옛날에는 실제로 이것으로 破瓜가 행하여졌던 것 같다.(cf. 宇能鴻一郎 『密戯・不倫』, 東京, 1965, p. 168f.)

을 하는데 별다른 장애가 없는 시공이면 굳이 밤이어야 할 이유도 없고, 굳이 밑실이어야 할 이유도 없다. 특히 天神(태양신)의 경우는 그 屬性으로써도 어쩔수 없이 낮에 여인에게 접근할 수밖에 없다. 즉,

I. 金蛙王은 이(柳花)를 이상히 여겨 방 안에 가두어 두었다. 햇빛이 비추는 바 되므로 몸을 당겨 피하였으나, 해 그림자가 또 따라와 비추는 것이었다. 이로 인하여 잉태하여 크기 닳되만한 알 하나를 낳았다. … (중략) … 한 아이가 알의 껍질을 깨고 나왔는데, 기골이 준수하였다. 일곱살이 우달리 숙성하여 활과 살을 스스로 만들어 쏘되 百發百中하였다. 그 나라 풍속에 활 잘 쏘는 이를 ‘朱蒙’이라 하였으므로 이로써 이름을 삼았다.¹⁷⁾*

密室에 유폐된 柳花를 따라다니며 비추었던 ‘햇빛’은 태양신으로 간주되며, 그의 성격상 그 때가 밤일 수 없다. 여인을 잉태케 하는 태양신의 ‘햇빛’은 때로 ‘태양신의 눈’(the eye of god)¹⁸⁾으로, ‘황금의 소내가’(a shower of gold)¹⁹⁾ 등으로 형상화되기도 한다. 이 때의 눈은 단순한 ‘눈’이 아니다. 이른바 ‘서로 눈동자를 보는 것으로 風化를 느끼고, 서로 보는 것으로 陰陽을 이룬다’²⁰⁾는 유의 ‘눈’이다. 이 ‘눈’은 ‘浴身禁忌說話’²¹⁾의, 보는 것이 금기된 浴室 안의 아내의 벗은 몸을 굳이 엿봄으로써 破局을 맞는 漁夫의 ‘눈’과 같이 공격적이요, 파괴적인 ‘눈’

17) 三國遺事, 卷1, 高句麗

18) So the old woman took the girl out of the iron house. But when she saw the bright world, the girl tottered and fainted; and the eye of god fell upon her, and she conceived. Her angry father put her in a golden chest and sent her floating away (fairy gold can float in fairyland) over the wide sea.(James Frazer, *THE GOLDEN BOUGH*, abridged ed., London, 1959, p. 603)

19) The old Greek story of Danae, who was confined by her father in a subterranean chamber or a brazen tower, but impregnated by Zeus, who reached her in the shape of a shower of gold. (perhaps belongs to this class of tales.)(*Ibid.*, p. 602)

20) 莊子所謂鵠 相視眸子 不運而感風化之類也 … (中略) … 司空彪云 … (中略) … 又云 相視而成陰陽(山海經箋疏 卷2, 司幽國).

이다. 窓戶紙의 손가락 구멍을 통하여 내부를 엿보는 視線은 저항하기 어려운 무서운 폭력으로 작용하는 것을 설화에서 흔히 본다.²²⁾ 그와같은 視線이 여인의 순결을 파괴하는 폭력이 되는 경우를 위의 柳花나 Danae의 설화에서 태양신의 ‘햇빛’, ‘눈’, ‘황금의 소내기’ 등으로 형상화하고 있음을 본다. 이른바 ‘夜來者’ 자체 여성의 순결을 파괴하는 폭력적인 ‘눈’에 對應하는 것이다. 이와같은 폭력적인 ‘눈’의 發想은 근원적으로 사물의 내부에 침입하려는 인간 본연의 호기심과 관련되어 있다. 인간은 他者の 內部를 보고 싶어 하는 유일한 被造物²³⁾인 까닭이다. ‘夜來者’는 他者=女性의 내부에 침입하려는 攻撃的 존재로서 바로 그 점에서 인간의 本元的 欲求와 맺어져 있다. 그리고 여성(순결)도 그와같은 공격성 앞에서 矛盾兩立的인 對應²⁴⁾을 하게 되어 있다. 일련의 야래자 설화에서 야래자를 대하는 여성의 태도는 대부분 적극적인 아니지만 受容的이라는 印象을 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태도가 매우 애매한 것은 위와같은 모순양립적인 위상에서 결과한 것이 아닌가 한다. 야래자에 대하여 적극적인 拒否를 나타낸 여인의 예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유부녀의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處容의 아내 역시 남편 출타중에 잠자리에 들어온 야래자(疫神)에 대하여 거부한 흔적이 전혀

21) cf. 孫晉泰 『朝鮮民族說話의 研究』, 서울, 1950, pp. 65-69.

22) 康津의 無爲寺의 壁畫 造成時 寺衆의 한 사람이 禁忌를 깨뜨리고 엿본 때문에 붓을 입부리에 물고 그리던 새가 날아가 버려 중단되었다는 傳說이 있고, 慶北 河川에서 假面을 단드는 것을 몰래 엿보았던 때문에 만들던 총각이 피를 토하고 죽었다는 전설이 있다. 이런 類의 전설은 사찰에 여러 모양으로 전한다.

23) cf. Hans Carossa, *Geheimnisse des reifen lebens*, 1936; Gaston Bachelard, *La terre et les rêveries du repos*(trans. 饒庭孝男 『大地と休息の夢想』, 東京, 1970), p. 20.

24) 전통적으로 處女性을 無垢의 完全性으로 보고 尊重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人類가 그 生命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處女性의 喪失을 불가피하게 하는 데 바로 女性의 矛盾兩立的인 位相이 있다. cf. Н. Бердяев. О НАЗНАЧЕНИИ ЧЕЛОВЕКА ОПЫТ ПАРАДОКСАЛЬНОЙ ЭТИКИ, 1931(trans. 野口啓祐 『ベルジャーエフ著作集』, 3, 東京, 1966), pp. 590ff.

찾아지지 않는다. 그 현장을 목격한 처용이 ‘잠자리를 보니 다리가 넷이로구나. 둘은 내 것이었고, 다른 둘은 뉘 것인가?’라고 노래하고 둘러난 것²⁵⁾으로 보아도 처용처는 역신과의 동침을 결코 마다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야래자에 대한 여인들의 태도는 대개 이와 같은 데서 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2) 探索모티프와 그 結果

다음으로 제기되는 문제가 정체 불명의 야래자에 대한 정체 해명을 위한 탐색 모티프다. 대부분의 야래자는 여인과의 관계를 전후하여 자신의 정체를 밝히지 않는 것이 예가 되어 있다. 이에 관한한 피차간에 묻지도, 말하지도 않는, 暗黙裡의 諒解가 성립되어 있는 것같은 착각마저 들 정도다. 드러내어 밝히지는 않았으나, 양자간에 말없는 가운데 설정된 터부(taboo)처럼 보인다. 앞의 B.에서 여자가 아버지에게 말한 가운데, ‘수려하게 생긴 사나이가, 그 성명은 알 수 없사오나, 저녁마다 찾아와 같이 지내는 사이에 어느덧 잉태하게 되었습니다.’라고 한 데서 알 수 있듯이 여자는 당장 눈으로 보고 느끼는 남자의 외양과 인상밖에는 남자에 대하여 알지를 못한다. 저녁마다 관계하였음에도 남자의 所從來에 대하여는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다. 야래자와 관계한 여인의 대부분이 이와 같았던 것으로 보인다. 터브가 확실한 것이 야래자의 정체를 밝혀내는 순간 즉 터브가 파기되는 것과 동시에 야래자와의 관계는 他意든 自意든 斷絶되기 때문이다. 그 드러난 예가 Cupid와 Psyche의 경우다.

J. Psyche는 밤마다 찾아와 동침하고 가는 Cupid의 얼굴을 본 적이 없었다. 자기를 부드럽게 대해 주는 사나이를 Psyche도 좋아하게 되었고, 낮에 떠나지 말고 모습을 보여 달라고 여러차례 간청하였으나, 그것만은 들어 주지 않았다. 앞으로도 자신을 보려고 하지 말라는 禁忌까지 내렸다.

25) cf. 三國遺事, 卷2, 處容郎 望海寺

남자에 대한 궁금증을 끝내 버릴 수 없었던 Psyche는 남자가 깊이 잠든 사이에 촛불을 켜고 남자의 정체체를 확인하려다가 그만 발각되었다. Cupid는 금기를 파기한 Psyche를 지상에 버려둔채 하늘로 날아가 버리고 돌아오지 않았다. 이 때부터 남자를 만나기 위한 Psyche의 고난이 시작된다.²⁶⁾ *

위의 예는 아래자가 여인에게 자신에 대한 정체 확인을 엄격히 금기하고 있는 경우다.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대개 아래자와 여인 사이에는 위와 비슷한 금기가 설정되어 있었던 것처럼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기를 깨는, 아래자에 대한 정체 확인에는 대개 제삼자——흔히 부모, 형제, 자매, 외삼촌과 같은 친권자나 혈연자가 개입하여 이루어진다.²⁷⁾ 위의 Psyche의 경우도 cupid의 정체 확인을 충동한 것은 그의 자매들이었다. 정체 확인과 관련하여 이런 특이한 경우도 있다.

K. 大物主神은 孝元天皇의 딸 倭迹迹日百襲姫에게 밤에만 찾아와 자고 갔다. 여인은 大物主神에게 ‘당신은 늘 낮에는 뵈 수 없어 분명하게 그 얼굴을 볼 수가 없습니다. 바라건대 잠시 머무소서. 밝은 아침에 우리러 아름다운 그 모습을 뵈을까 하나이다.’하고 간청하였다. 이에 大物主神은 ‘내일 아침 그대의 빗 상자(櫛司)에 들어가 있을 것이니, 절대로 내 모양에 놀라서는 아니되오.’하였다. 여인이 아침에 빗 상자를 보니, 예쁜 작은 뱀이 있었다. 그 길이와 두께는 옷끈 정도였다. 이것을 본 여인이 소스라쳐 놀라 부르짖으니, 大物主神이 부끄러워 곧 사람의 모양이 되어 여인에게 말했다. ‘그대는 감히 나를 부끄럽게 하였다. 내 또한 그대를 부끄럽게 하리라.’ 이에 하늘을 밟고 御諸山으로 올라가 버렸다. 여인은 우리러 보고 심히 뉘우쳐 털석 주저앉으며 젓가락에 陰部를 찢려 죽었다. 大市에 장례하였는데, 그 무덤을 사람들이 ‘젓가락 무덤’(箸墓)이라고 부른다.²⁸⁾ *

26) cf. Thomas Bulfinch, *Mythology, A Modern Abridgment* by Edmund Fuller, New York, 1963, pp. 71-75

27) 주인공 자신이 정체해명의 방법을 강구하는 경우도 꽤 나타나고 있으며, 더러 외부인——승려, 마을 사람들, 점장이가 있고, 일본의 경우는 유모, 조부, 조모의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cf. 金和經, *op. cit.*, p. 270.

28) cf. 日本書紀, 卷5, 崇神天皇 10年 9月.

야래자 자신이 정체를 드러내 보이는 위와 같은 경우는 매우 드물다. 그러나, 이 때도 상대방의 모양에 놀라 ‘부끄러움을 주어서는 안된다’는 금기가 설정되었던 셈이고, 그것이 지켜지지 않자 결정적인 파국이 찾아 왔다. 어쨌든 야래자의 정체 확인의 문제는 야래자나 여인의 양편 모두 對極的인 위치에서 심각하게 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고, 따라서 양편이 이 문제에 관한한 금기 아닌 금기로 默契한 상태로 지냈던 것으로 보인다.

야래자의 정체 확인을 위한 탐색수단은 설화상 여러 가지로 나타나고 있으나, 지배적인 것은 바늘에 실타래(실꾸리, 실패)의 실을 펜 것을 야래자 몰래 그의 옷이나 어느 부분에 찌르거나 꽂아 두었다가 밝은 날에 실 간 데를 찾아가는 手順이다. 그것의 變形으로 삼베 실을 야래자의 윗옷의 옷단에 매어 두거나,²⁹⁾ 끝에 실을 펜 쇠송곳(金錐)으로 야래자의 목 뒤를 찌름으로써 야래자가 펄쩍 뛰면서 크게 부르짖으며 실을 끌고 사라져 간 경우,³⁰⁾ 모시실을 야래자의 옷 단추에 매어둔 경우³¹⁾ 등을 볼 수 있다. 위의 ‘실타래型’에 ‘엇듣기’가 첨가하여 이야기가 새롭게 전개되는 경우도 있다. 즉,

L. 부모가 실을 따라간 즉, 그 실은 연못을 거쳐 동굴 속에 들어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야기 소리가 들려 오는 것이었다. 엇들어 보니, 부모인 듯한 목소리가 아들인 듯한 것에게 말하기를, ‘사람들에게 나쁜 짓을 한 때문에 너는 쇠독으로 아마 죽게 되지 않겠는가?’하니, 아들인 듯 싶은 것이 말했다. ‘인간 여자에게 내 새끼를 배게 하였으므로 이제 죽어도 괜찮습니다.’하였다. 그러자 아버지는 말했다. ‘사람들은 영리해서 내 새끼를 그대로 돌리가 없다. 3월 쑥술(蓬酒)이나 5월 창포술(菖蒲酒), 9월 국화술(菊花酒)를 마시고, 따뜻하게 끓인 물 속에 몸을 담구어서 그 애를 떨어지게

29) cf. 肥前風土記 松浦郡 褶振峯; 金和經의 해석에 의함.

30) cf. 孫晉泰, *op. cit.*, p. 205f. 宣室志(張景의 딸).

31) cf. 高木敏雄 『增訂 日本神話傳説の研究』, 2, 大林太良 編, 東京, 1974, p. 253.

할게 뻔하지 않느냐!’고 했다. 이 말을 엿들은 처녀의 부모는 집으로 돌아와 들은 대로 하여 그것의 새끼를 쏘아 버리게 하고, 딸은 무사하게 되었다.³²⁾

위의 예에서는 딸의 순결을 침해한 야래자 異類를懲治하는 대신 異類의 자식을 잉태한 딸을 落胎시킬 秘方을 얻어 듣게 된 것을 다행으로 알고 그대로 내버려두고 돌아온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여인편의 사람들에게 발견된 이류들은 응분의 징치를 받거나 살해되고 만다.

M. (전략) … 이에 땅을 서너치 남짓 팠더니, 썩은 절구공이 하나가 있었다. 그 나무 끝에 실이 매어 있었는데 나무 꼭대기에 彈子 크기만한 보랏빛 구슬 하나가 있는데, 광채가 사람을 쏘았다. 그 사람이 그 구슬을 빼어 주머니 안에 간직하고, 그 나무는 태워 버리니 그 뒤로는 (야래자의) 자취가 끊어졌다. 어떤 날 밤 그 사람의 집 문 아래 문득 어떤 사람이 와서 그 구슬을 돌려 주기를 빌면서 그렇게만 한다면 부귀공명이 따를 것이라며 간곡히 청하였으나, 종시 허락지 않자 밤새도록 슬프게 빌다가 잤다.³³⁾ *

야래자로 행세한 ‘절구공이’를 태워 버린 경우다. 그러나, 공이에 박혀 있던 구슬은 간직한 사람이 훗날 醉中에 길에서 자다가 잃어 버렸다. 아마도 공이의 精靈이 취해 가지 않았는가 한다. 설화상으로는 야래자의 정체를 확인한 것으로 끝나고, 그 뒷처리를 밝히는 일을 불필요하게 여겨서 아니하였거나, 무관심하여 안한 경우가 있는가 하면 L.의 경우와 같이 소각해 버리거나, 쇠송곳을 쓴 張景의 딸의 경우처럼 (고목 아래 구멍에서 한 자 남짓한 굵뎡이를 발견하고 죽여 버렸다.) 살해하거나³⁴⁾ 한 그 결말을 명백히 밝히고 끝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

32) cf. 金和經, *op. cit.*, p. 272.

33) 溪西雜錄, 卷2, 橫城女.

34) 구전 자료에서는 ‘撲殺’한 경우도 많이 조사되고 있다. cf. 徐大錫, *op. cit.*, p. 43.

러나, 야래자를 퇴치하는 경우는 야래자가 부정적인 영적 존재(惡靈, 木怪, 魑魅, 物怪, 精靈 등)에 한정되어 있다. 긍정적인 영적 존재(천신, 지신, 산신, 용신 등)의 경우는 加害는 고사하고, 이를 받들어 祭儀를 행하게 된 사실을 설명하기도 한다. K.의 大物主神은 祭神으로 받들어지고 있는 경우다. 이에서 보듯 說話者의 ‘夜來者’ 意識은 ‘神明’과 ‘靈怪’를 엄격히 구별하고 있다는 인상을 준다.

(3) 非常人的 誕生

야래자와의 性的 接觸의 결과 임신한 여인이 出産하는 경우 야래자가 비록 非人間임에도 불구하고, 아이(人間)를 出産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매우 드문 일로서, 異類——뱀새끼를 낳은 경우가 있다. 즉,

N. 茨城里 북쪽에 晡時臥山이 있다. 古老의 말이 이러하다. 男妹 두사람이 살았는데, 여동생의 방에 姓名을 알 수 없는 사람이 늘 와서 求婚하되, 밤에 와서 밝으면 돌아 갔다. 마침내 부부의 인연을 맺어 하루 밤에 임신하였다. 달이 차서 작은 뱀을 낳았는데, 뱀은 밝은 낮에는 말을 앓고, 날이 어두워지면 어머니와 이야기를 하였다. 어머니와 삼촌은 놀라고 이상하게 여기면서 필사 神의 자식이리라 생각하여 정갈한 그릇에 넣어 단을 단들어 그 위에 안치하였다. 하룻밤 사이에 그릇에 가득찰 정도로 자라니 다시 그릇을 바꾸어 주었더니, 또 그릇에 가득찰 정도로 자랐다. 이렇게 하기를 서너 번 하자 그릇을 댈 수가 없었다. 어머니가 자식에게 말했다. ‘너의 器量을 보니 神의 자식임을 알겠다. 우리 집 형편으로는 너를 양육할 수가 없다. 그러니 너는 아버지가 있는 곳으로 가거라. 여기 있지 말아라.’ 이 말에 자식은 슬피 울며, 낮을 뉘고 대답하여 말했다. ‘삼가 어머니 말씀에 따르겠습니다. 감하 마다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혼자 가는데 같이 갈 사람이 없으니 불쌍히 여겨서 아이 하나만 붙여 주십시오.’ 어머니는 ‘우리 집에 있는 사람이란 어머니와 삼촌 뿐인데, 이것은 너도 알 터이다. 따라갈 사람이 누가 있느냐!’하였다. 이에 아이는 원한을 품고, 아무 말도 앓고, 헤어질 때가 되어 노여움을 이기지 못하여 삼촌을 우뢰를 쳐 죽이고 하늘로 올라가려 하였다. 어머니가 놀라 사기 그릇을 들어 내던져 맞히니 아이는 올라가지 못하고 이 산봉우리에 커무르게 되었다. 그를 담았던 그릇들은 지금도 片

岡村에 있다. 그의 자손이 사당을 세우고 제사하여 끊이지 않는다.³⁵⁾ *

이 전승에서 아버지의 정체에 관하여 언급되어 있지 않으나, 아마도 雷神으로 추측되며, 자식도 뱀 모양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雷神의 성격이 질다. 아버지 야래자의 본체가 뱀이고, 관계한 여인이 뱀새끼를 낳은 경우³⁶⁾도 더러 조사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異類를 낳는 경우는 극소수이고, 대부분은 童子를 낳는다. 야래자가 木怪, 物怪, 葡萄의 精靈... 등의 경우는 정체를 확인하는 대로 죽이거나 불태워 없애버리는데,³⁷⁾ 이런 경우는 여인의 출산이 보이지 않거나 이에 관한 언급이 없다. 따라서 說話者 意識은 여인이 자식을 낳는 경우의 야래자는 그의 父性 때문에 도 결코 母性側의 退治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배려하고 있다는 인상을 준다.

야래자를 父性으로 하여 출생한 ‘童子’의 경우 대개 비상한 인물로 형상화되고 있다. A.의 甄萱의 경우를 보자.

O. 당초 견훤이 강보에 싸인 어린애였을 때 아버지가 들에서 밭을 갈고, 어머니가 남편의 식사를 갈물하느라고 아이를 수풀 속에 뉘었었는데, 호랑이가 와서 아이에게 젖을 먹이는 것이었다. 마을 사람들이 듣고 이상히 여겼다. 장성하자 체모가 썩썩하고 기이하였고, 뜻이 크고 기개가 있어 범상하지 않았다.³⁸⁾ *

지령이(精靈)의 자식인 견훤은 강보의 어린애 때부터 이미 범상한 아이와는 달랐다는 것이며, 장성하여서는 생김새나 기상이 또한 보통 사람과는 달랐다. 과연 後百濟를 開國할 英雄다운 풍모를 가졌던 것으로 형상화되고 있다. 이렇게 출생한 영웅적 인물로는 淸太祖, 中國 天

35) 常陸國風土記, 那賀郡, 茨城里.

36) cf. 金和經, *op. cit.*, p. 286(자료 28).

37) 야래자의 정체가 童蓼이었을 때 이를 캐내어 달여 먹거나(崔常壽 『韓國民間傳說集』, 通文館, 1958, p. 157f.) 캐어서 막대한 돈을 얻는다.(孫晉泰 『朝鮮의 民話』, 東京, 1968, p. 108)

38) cf. 三國遺事, 卷2, 後百濟 甄萱.

子, 平康 蔡氏의 始祖, 昌寧 曹氏의 始祖, 百濟 武王, 眞覺國師 등이 보인다.³⁹⁾ M.에서와 같이 神子를 낳는 경우도 있다. 요컨대 야래자 설화에서 출생담이 곁들여지는 경우 그 출생은 비상한 인물이거나 神의 탄생으로 귀결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이 혹 ‘금방울’이라든가 I.의 경우에서처럼 ‘알’(卵)과 같은 中間 宿主를 거쳐서 종당에 인간으로 출현하는 變容도 가질 수 있다.

Ⅲ. 敘事的 變容

(1) ‘夜來’의 ‘晝來’로의 變容

야래자 설화의 세 가지 모티프를 가설하고, 그 구체적인 설화 자료들을 검증해 본 결과 그 소재는 물론 주제 설정과 모티프의 구성, 기타 여러 면에서 매우 다양성을 띠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른바 ‘야래자’형의 원초형을 추적한 결과는 ‘夜來者’라는 ‘밤’의 개념부터가 절대적 요건이 될 수 없음이 확인되었다. 영적 존재와 여인의 성적 교섭이 이루어지는 時空은 물론 ‘밤’과 같은 은밀한 시간, 밀실과 같은 은밀한 공간이다. 그러나, 반드시 ‘밤’, ‘밀실’만이 그 은밀성을 보장하는 유일한 시공은 아니었다. 특히 그 영적 존재가 ‘태양신’(햇빛)일 때에는 결코 ‘밤’의 조건을 충족시킬 수 없었다. 檀君神話에서 보면 호랑이가 禁忌를 못지켜 사람이 되는 데 실패하였으므로 熊女는 짝할 상대를 찾을 수 없게 되었다. 그리하여 웅녀는 매양 壇樹 아래에 와서 자식을 낳게 해달라고 빌었으므로 桓雄이 잠시 사람으로 변하여 웅녀를 취하여 잉태케 하여 아이를 낳으니 그 이름이 壇君 王儉이었다.⁴⁰⁾ 환웅은 나무에 깃든 天神이다. 樹木神에 祈子하는 민속은 지금도 더러 남

39) cf. 徐大錫, *op. cit.*, p. 42.

40) 虎不能忌 而不得人身 熊女者無與爲婚 故每於壇樹下 呪願有孕 雄乃假化而婚之 孕生子 號曰壇君王儉(三國遺事, 卷1, 古朝鮮 王儉朝鮮).

아 있다. 이 때의 환웅과 웅녀는 이른바 ‘야래자’형의 靈交를 하였을 것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웅이라는 천신 내지 태양신의 자식이라는 성격 때문에도 그 時空이 밤, 밀실이라는 조건에 매였을 것 같지가 않다.

(2) ‘異類’의 ‘異客’으로의 變容

그리고 異類와의 交婚이라는 모티프도 다양한 서사적 변용을 보이고 있다. 그 交婚의 상대가 당초 異類(非人間)였으나 異人(人間)으로 變容되기도 한다. 非人間의 異類가 異樣物로, 다시 異樣人物 즉 異人, 다시 異客등으로 굴절, 변용된 것을 볼 수 있다.

P. 新羅 文武王의 庶弟 車得公이 중옷을 입고 琵琶를 들고 居士모양을 하고 서울을 나와 阿瑟羅州, 牛首州, 北原京을 돌아 武珍州에 이르러 마을을 순행하였다. 고을의 구실아치 安吉이 보고 異人으로 여겨 그의 집에 맞아 정성껏 대접하였다. 밤이 되자 안길은 妻妾 세 사람을 불러 ‘오늘 나그네와 잠자리를 같이 하는 이는 평생 같이 지낼 것이다.’라고 말했더니, 두 아내는 ‘차라리 같이 못살지언정 남과 함께 잘 수 없습니다.’고 거절하였다. 한 아내는 ‘공께서 평생 같이 살게 하신다면 명을 따르겠습니다.’하고 異客과 밤을 함께 지냈다. 아침에 거사가 떠나며 말했다. ‘나는 서울 사람으로 내 집은 皇龍과 皇聖 두 절 사이에 있고, 내 이름은 端午입니다. 주인께서 서울에 오시거든 찾아 주시오.’⁴¹⁾ *

Q. 어떤 선비가 산길을 가다가 날이 저물었다. 마침 집이 하나 있어 들어가 하룻밤 자고 가기를 청하였다. 마침 그 집의 남자는 외지에 나가 부재중이었고, 어린 두 아들을 거느린 부인 혼자서 집을 지키고 있었다. 산속의 단칸 집이라 사정이 딱했으나, 어쩔수 없어 부인은 나그네더러 자고 가게 하였다. 새는 날 선비는 고맙다는 인사와 함께 양반인 자기의 신분을 밝히고 떠나갔다. 그 뒤 부인은 잉태하여 세째 아이를 낳았다. 남편이 사정을 모르는 것은 너무나 당연했다. 한 번은 양지바른 남쪽 산비탈을 헐어 터를 닦고 집을 지었다. 집들이에 앞서 첫날 밤을 맞아들을 보내어 자게

41) 三國遺事, 卷2, 文虎王 法敏

하였더니, 꿈에 웬 노인이 나타나 이곳은 네 터가 아닌데 어찌 왔느냐고 호통치고 쫓아내므로 질겁을 하고 도망왔다. 다음날에는 둘째를 보냈는데, 이 역시 마찬가지로 밤중에 쫓겨 왔다. 다시 셋째 아들을 보냈더니 해가 동쪽 하늘에 높이 떠오를 때까지도 소식이 없었다. 어린 것이 무슨 변을 당했나 걱정이 되어 부부가 가 보니 셋째는 늘어지게 자고 있었다. 꿈에 노인이 나타나 이제야 임자가 왔다고 반기며, 온갖 맛있는 음식을 차려 극진히 대접하여 다음껏 먹고 기분 좋게 한잠을 잤다는 것이었다. 아버지는 새로 지은 집을 셋째에게 살게 했다. 어머니는 혼자 생각에 그 터가 양반터임을 짐작하게 되었다.⁴²⁾

P.의 경우는 異類 交婚이 異人 내지 異客과의 交婚으로 변용되어 나타난 예로, 異客款待의 民俗과 연결되는 사실로 보인다. Q.도 역시 이 객과의 교혼이나, 여기에는 출생모티프가 보이며, 夜來者型 說話 一般의 ‘非常人物 出生’ 모티프가 여기서는 ‘兩班系 人物의 出生’으로 매우 현실적인, 上昇된 社會身分으로 변용되어 있다. 후대의 소설, 설화 등에 나타나는 ‘異人과의 同衾’——‘낮설은 나그네와의 同衾’이라는 모티프도 위와 같은 일련의 서사적 변용 선상에서 고찰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3) ‘非常人’의 ‘始祖’로의 變容

靈的 異類와의 性關係의 결과로 여인의 몸에서 탄생하는 것이 ‘사람’(동자)인 경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비상한 인물로 시사되던 것이 어떤 씨족의 시조로 변용되어 서사되는 경우도 꽤 나타나고 있다.⁴³⁾ 즉,

42) 未詳의 稗說書

43) 몽골족의 Alan Qo'a 라는 과부는 日月神의 精인 빛나는 노란 빛을 띤 사람이 매일 밤 창외 밝은 빛을 따라 집안에 들어와 배를 쓰다듬어 주었는데, 그 빛이 뱃속에 스며 들어오는 것을 느꼈다. 사나이가 나갈 때에는 日月의 輻射를 따라 황금빛 개모양 기어서 나갔다. 그로 말미암아 Alan Qo'a는 몽골족의 3대 氏族의 始祖가 된 세 아들(Buru Qatagi · Buqatu Salji · Bodončar Munqar)을 낳았다. cf. 『元朝秘史』(trans. 村上正二 『モンゴル秘史』, I, 東京, 1970), pp. 28-31.

R. 한 아낙네가 강 가에서 빨래를 하고 있었는데, 큰 잉어가 떠 오르더니 아낙네 곁으로 가까이 가서 별안간 뛰어 올라 꼬리로 아낙네의 허리 밑을 아야 소리를 낼 정도로 아프게 치고 물 속으로 사라져 버렸다. 아낙네는 이로 인하여 잉태하여 옥동자를 낳았다. 그 아이의 姓을 ‘魚’씨라 하였는데, 그 아이가 魚氏의 시조가 되었다.⁴⁴⁾

위의 ‘옥동자’는 ‘魚’씨의 始祖라는 것 이상의 특별한 의미를 주고 있지 않다. 물론 유난스러운, 비상한 인물로 형상화되어 있지 않다. 비슷한 시조 탄생 설화로, 蔡氏沼의 전설이 있다.

S. 平康郡 楡津面 楡津里에 사는 부호집 딸에게 밤마다 이상한 남자가 와서 자고 가더니 잉태하였다. 부모가 알고 딸을 시켜 바늘에 당사실을 꿰 것을 남자의 옷깃에 꽂게 하고, 밝은 날 실을 따라가서 남자의 정체를 확인하니, ‘말바위소’(馬岩沼) 속에 사는 큰 거북으로 오색 찬란한 빛이 돌았다. 부모는 거북을 해치지 않고 고이 소에 넣어 주고 돌아왔다. 딸은 그 뒤 동자를 낳았는데, 성을 큰 거북을 뜻하는 글자로 ‘蔡’라 하고, 거북이 광채가 있었으므로 이름을 ‘元光’이라 하였는데, 그가 평강 채씨의 시조다. 거북이 있던 ‘마암소’를 이런 일이 있고 나서 ‘蔡氏沼’라 불리 온다. 그 동자는 재주가 뛰어나 장성하여 정승으로 기용되었다고 한다.⁴⁵⁾

여기서는 출생한 인물의 비상함이 언급되고 있으나, 그 비상은 인간의 차원이라는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다.沼에서 발견한 문제의 야래자— 거북을 해치지 않았다. 아이의 출생과 관련된 夜來者에 대하여는 대개 偶然한 事故死를 예외로 하고, 殺意를 품고 殺害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昌寧 曹氏 始祖說話의 경우 夜來의 靈物이 아니라 여인이 못에서 목욕을 하는 가운데 靈物과 관계되어 잉태하는 것으로 변용되었다. 즉,

T. 신라 한림학사 李光玉의 딸 禮香이 靑龍疾을 얻어 이를 고치기 위해 昌寧 火旺山 龍潭에서 목욕을 하다가 龍子와 사귀어 生男하였다. 겨드랑이

44) cf. 崔常壽『韓國民間傳說集』, 通文館, 1958, p. 89f.(筆者 要約)

45) cf. *Ibid.*, p. 448f.(筆者 要約)

밑에 ‘曹’자가 있었으므로 성을 ‘曹’라 하고 이름을 ‘繼龍’이라 하였다.⁴⁶⁾

못과 관련된 坡平 尹氏의 始祖 出生 說話가 있는바, 앞의 T. 火旺山 龍潭 說話와 같은 계통으로 보이나, 靈物과 女人과의 직접적인 性關係와 出產過程을 배제하고, (아이가 들어 있는) ‘상자’ 상징을 쓰고 있는 점에서 매우 굴곡된 변용을 보이고 있다.⁴⁷⁾

(4) ‘夜來 物怪’와 受胎, 出產

夜來者型의 異類가 異人, 異客으로까지 변용되는 반면 返浴의 대상일 수밖에 없는 物怪類로 변용되기도 한다. 물괴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출생과 무관하고, 이들은 물괴임이 발각되는 것과 동시에 사람에게 의하여 태워버리거나, 박살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살해하여 자취를 끊어 버린다. 『崔孤雲傳』에서 최치원의 출생담은 物怪 퇴치와 관련하여 다양한 소설적 변용을 보이고 있다. 즉,

U. 平安北道 文昌 땅은 도입한 縣令마다 內衙에서 부인을 잃어버리는 變故가 있었다. 문창 현령으로 부임한 최충은 당사실로 부인의 발목을 매어두고 婢子 십여 명으로 지키게 하였으나, 역시 변고를 당하여 부인 장씨를 잃어버렸다. 官衙의 뒷산 일약령을 수색하다가 층암절벽 위의 고목나무 가지에 당사실 끝이 걸려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바위로 올라가 두드려 부인을 불렀으나 소용이 없었다. 노인의 말에 그 바위가 야삼경에는 저절로 열린다는 것이었다. 최충은 돌아갔다가 밤들가를 기다려 그곳을 다시 찾아가 보니, 석문이 반쯤 열렸는데 그리로 불빛같은 광선이 비치는 것이었다. 기어 올라가 그 안을 들여다 보니 천지 명랑한 판 세상이 벌어져 있었다. 안으로 들어가니 高樓巨閣이 있는데 후원 동산에 숨어서 동정을 엿보니 별당에 큰 황금빛 도야지 한 마리가 부인의 무릎을 베고 누워 있고, 전후에 미부인들이 웅위하고 앉아 있었다. 최충은 비취향을 바람결에 피워 향내를 풍겼다. 향내를 맡은 부인은 남편이 온 것을 알아차리고, 반가워 하

46) cf. 창녕군 『내고장전통가꾸기』, 제 1 집, p. 409(昌寧 曹氏의 得姓).

47) cf. 崔常壽, *op. cit.*, p. 9f.(坡平 尹氏 龍淵)

였으나, 내색할 수는 없었다. 도야지에게 여러가지 말을 걸어 환심을 사고 나서 부인은 도야지가 무서워하는 것을 알아냈다. 그녀는 차고 있던 열쇠 끝의 鹿皮끈을 끌어서 입에 넣고 한참을 불려서 도야지 뒷덜미에 갖다 붙였다. 도야지는 말 한 마디 못하고 잠자듯 죽었다. 부인은 남편 최충과 함께 무사히 돌아왔다. 그 뒤 십삭이 지나 부인은 생남하였다. 아이는 기골이 장대하고 총혜 명민한 기상이 奇男子라 할 만했다. 부인은 잉태한지 수삭만에 도야지의 변고를 만나 끌려 갔다 돌아왔으나, 현령과 관민이 모두 그 아이를 도야지의 혈육인가 의심하여 초도해라는 바닷가에 내다버렸다. 그러나, 하늘의 도움인지 그 아이는 선녀가 내려와 섬 안에 갖다 두고, 젖을 먹여 양육하였다. … (중략) … 白髮老人이 나타나 말했다. ‘그 아이는 본디 하늘 문창성으로 잠시 인간에 적강하여 최가에 인연을 맺게 한 고로 아이 모친이 잉태한지 수삭만에 도야지 변을 지내고 십사삭만에 생산을 하였으나, 자고로 큰 사람은 열달이 지난 후에 났나니, 요임금과 효소황제는 십사삭에 낳았으니 어찌 달수를 교계하여 뉘 혈육을 구별하라? 이 아이는 최충의 아들이 분명할 뿐아니라 무슨 짐승이든 서로 교합하여 새끼를 낳을 것 같으면 어디든 닮는 법이다. 도야지 자식일진대 어찌 닮은 데가 없으랴! … (후략)’ … 이에 최충은 마음을 돌이켜 아이 찾을 생각을 하였다. … (후략)⁴⁸⁾

『최고운전』은 야래자 설화의 여러 모티프를 다양하게 변용시켜 형상화하고 있다. 異類가 관아 안의 여인(최충의 아내)에게 접근하여 납치하는 것을 보면, ‘여러 동내를 별안간 텃디를 분변치 못하게 되고 실래마님이 가신 곳을 야지 못하’⁴⁹⁾게 하고 있다. 이로써 보아 그 시간은 각별히 은밀한 때, 밤을 고른 것 같지는 않고, 보기에 따라서는 낮인 듯하다. 특별히 은밀한 時空을 가려서 온 것 같지 않다. 그 대신 올 때는 자신의 행적을 은폐할 수 있도록 갖가지 조화를 부려 충분한 대비를 하고 있고, 또 여인과 당장 동침하는 대신 납치해 가서 동거하는 수법이 다른 이류들과 다르다. 여기서도 ‘실’에 의한 탐색 모티프가 보

48) cf. 崔孤雲傳, 世昌書館, pp. 1-14.

49) *Ibid.*, p. 3.

이나, 이것 역시 夜來者型 一般과는 상당한 변용을 보이고 있다. 즉, 여기서는 부인의 발목에 여러 백자 되는 당사실을 때어 두었다고 했고, 이것이 異類의 거처를 발견하는 단서가 되었다. 출생 모티프는 가장 굴곡 많은 변용을 보이고 있다. 부인 장씨는 납치로부터 십삭만에 동자를 출생하였는데, 일반 상식으로는 동자는 금빛 도야지의 자식이다. 그렇지 않아도 남편 최충도 官民도 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으로 나타나 있다. 그 아이가 도야지의 자식이라 할 것 같으면 장씨 부인은 경위야 어떻든 자식의 아버지를 죽인 패역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이와같은 문제를 이 소설의 작자는 숨썩있게 해명해 나갔다. 즉, ‘부인이 잉태한지 수삭만에 도야지 변을 만나 갖다왔⁵⁰⁾’이라고 단서를 달았다. 그러나, ‘본내 그것을 뵈지 슈삭만에 도야지변을 당한 것은 분명하나 다만 십사삭만에 난 것으로 그놈의 혈육인가 의심함⁵¹⁾’직한 것도 부인할 수 없다. 14개월만에 출생하였다는 사실과 잉태한 지 수(3, 4 ?)개월만에 변고가 있었다는 사실이 서로 맞물려 석연하게 가닥이 잡히지 않는다. 작자는 이를 신령한 노인의 입을 빌어 명쾌하게 해결해 버렸다. 즉 ‘자고로 큰 사람은 열달이 지난 후에 낫나니 요임금과 효소황태난 십사삭에 나앗스니 엇지 달수를 교계하여 뉘 혈육을 구별하라 … (중략) … 또 확실한 증거로 아해 등에 은연이 홍점이 잇스니 이난 최충의 등에 잇난 홍점을 표함이라 일호도 의심할 것이 업난대 … (후략)⁵²⁾’ 이 말을 들은 최충이 ‘자고 등을 그제야 자세 상고하니 과연 은은한 불근 점이 완연하다.’⁵³⁾ 그리하여 최충은 아이가 자기 자식임을 확신하고 찾고자 한다. 결국 異類(도야지)에게 겁탈되었던 장씨 부인이 잉태 14개월 만

50) *Ibid.*, p.10.

51) *Ibid.*, p.11

52) *Ibid.*, p. 13f.

53) *Ibid.*, p. 14.

54) cf. 安住居 編 『包圍羅演義』, 五車書廠, 1915, 讀法.

에 낳은 자식은 이류의 자식이 아니라, 남편인 최충의 자식으로 낙착이 되었고, 따라서 이류를 죽인 장씨의 처사는 정당화될 수 있었다. 만약에 장씨가 이류의 자식을 출생하였다면 그 사실과 장씨의 금빛 도야지 살해 사건 사이에는 꽤 난처한 갈등이 생길 뻔하였다.

(5) 探索的 ‘실’의 變容

야래자 탐색에서 나타난 ‘실’은 우리 문학에서 ‘감추어진 진실’을 탐색하는 주요한 도구로 쓰이고 있다. 傳統的인 小說의 讀法에서 ‘線法’을 몰라서는 안된다고 한다.⁵⁴⁾ 線法이란 伏線, 隱線, 對線, 單線, 雙線, 無形線 등 六線을 말하는데, 이것은 소설의 주요한 手法으로 독자에게 문제를 제시하여 탐구욕을 북돋아 가며, 때가 올 때까지 해결을 보류하고, 신비스러움과 해결에 대한 열망을 계속 고조시키고, 또는 전도된 상태를 지속시킴으로써 초조와 갈등을 심화시킨 끝에 가장 효과적이라 생각되는 시점에서 기대 이상의 해결을 이끌어 내거나 기대에 배치되는 절망적인 결말을 지어 버리거나 할 때 최종적인 진실을 숨겨 두고, 또 그리로 가까이 이끌어 가는 계체를 ‘실’의 탐색적 기능으로 설명하는 용어들이다.

사실에는 밝혀낼 단서가 있으니, 이를 線索이라 한다. 대개 끈으로 물건을 이끌어 내듯 그를 밧어 사실의 진상을 찾아낼 수 있다.⁵⁵⁾

감추어진 사실을 추구하여 그 始末을 얻었을 때, 이를 ‘線索’이라고 이른다. 또 간단히 ‘線’이라고도 일컫는다.⁵⁶⁾

큰 옥을 관통하고 있는 굴곡 많은 구멍에 실을 꿰라는 난제를 당하여 개미 허리에 실끈을 매고 한쪽 구멍으로 들어 보내고, 반대쪽 구멍

55) 事有可尋之端緒 曰線索 蓋謂如繩之引物 可藉以探求其事之真相也(中文大辭典, 線索).

56) 線 推求秘事 得其端倪 謂之線索 亦簡稱曰線(*Ibid.*, 線)

에 꿀을 발라 그리로 유도하여 무난히 옥에 실을 꿰었다고 하는 類의 이야기에서도 실의 탐색적 기능의 변용을 볼 수 있다.

(6) 出生 모티프의 變容

영적 존재가 여인에게 접근하여 잉태하게 한다는 모티프는 고전소설의 주인공의 출생담에서 다채롭게 변용되어 나타나고 있다. 일례로 『금방울전』의 경우를 보자.

V. 홀연 일진 음풍이 이러나며 초막 압해 한 사람이 셋거늘 막씨 자서 이 보니 이곳 삼랑이라 놀나 무려 왈 … (중략) … 령연을 배설하얏더니 아지못게라 사라서 오시난가 엇지 이 집흔 밤에 거취가 분명치 못함은 엇전 일이닛고 … (중략) … 삼랑이 목이 폐여 하난 말이 내 … (중략) … 과연 난 중에 죽으매 … (중략) … 비록 유명이 다르나 그 감격함을 사례크저 하노라 하고 생사와 다름업시 수작하고 도라간 후 자조 왕내하더니 그 중에 또한 친밀함이 잇서 막씨 이럼으로 조련이 복명이 이러남에 맞치 태상에 아해 노릇하야 점점 커지거날 막씨 내심에 고이히 여겨 행혀 남이 알가 근심하더니 십삭이 맞쳐서난 산점이 완전하야 려막에 업대엿더니 문득 해복하고 도라보니 아해난 아니요 금방울 갓튼거시 금광이 찬란하거날 막씨 이 경상을 보고 대경하며 고이히 여겨 이에 손으로 놀느되 터지지 아니하고 돌에 깨여지지 아니하거날 다시 집어다가 멀니 바리고 도라오니 방울이 굴너 짜라오는지라 더욱 신과하야 집어다가 집흔 물에 드리치고 도라오니 방울이 굴너 짜라오는지라 … (중략) … 막씨 활일업서 두고 보니 밤이면 품속에서 자고 낮이면 굴너단이며 혹 나려온 새도 잡고 혹 남게도 올라 실과도 짜가지고 압해 노흐니 (중략) … 일몽을 으더며 텨상으로서 일위 선관이 나려와 … (중략) … 막씨다려 왈 그대는 아마도 녀아의 얼굴을 보면 자연 알니라 하고 또 금령다려 왈 너는 인연이 다 진하얏슴에 인간에 부귀영화 극진일지라 하고 손으로 금령을 어루만지니 문득 금령이 터지며 일위 옥골선녀 나오니 … (중략) 놀나 깨다르니 침상일몽이라 … (중략) … 금령을 차진즉 간대업고 난대업는 일위 선녀 것태 안젓거날 놀납고 고이 녀여 자서 이 보니 과연 몽중에 보던 선녀라 화용월태와 단순호치며 백태천광이 사람의 정신을 아스니 가위 경국지색이라 … (중략) … 일흠을

금방울소저라 하고 자를 선애라 하더라 ... (후략)⁵⁷⁾

막씨에게 온 야래자는 남편의 死靈이다. 그는 생시 蕩兒로 지내다 天殃으로 난중에 죽었는데, 죽어서도 鬼神의 類에 참여 못하고, 음풍이 되어 떠돌아 다니는 불우한 死靈이었다. 死靈과 은밀한 접촉을 한 막씨는 그로 인해 잉태하여 출산하였다. 사람의 자식이 아니고, 기이한 금방울을 출생하였다. 온갖 우여곡절을 다 겪고 난 후일, 금방울은 껍질을 벗고 여인으로 세상에 나온다. 결국 ‘금방울’ 그것은 사람으로 탄생하기까지의 中間宿主(intermediate host)였다. 夜來者型 一般이 그렇듯이 막씨와 야래자(死靈)와의 관계는 금방울 출생을 계기로 단절된 인상을 준다. 이 경우의 性關係는 마치 한 번만의 혈육 출생이 목적이었던 것처럼 보인다. 그렇다면 야래자의 여인 접촉을 단순한 性衝動의 소치로 보기 어렵다. 夜來者 自身の 自己 實現이라는 動機가 類推된다. 靈存在의 肉體實現 즉 受肉化(incarnate) 志向이다.⁵⁸⁾ 출산에 의하여 자기 실현이 성취된 마당에 다시 여인에게 접근할 이유가 없고, 따라서 모든 야래자는 여인의 출산을 계기로 여인과의 인연을 끊게 되었던 것이 아닌가 한다. L의 야래자=아들이 하는 말——‘인간 여자에게 내 새끼를 배게 하였으므로 이제 죽어도 괜찮습니다.’에서도 그와같은 동기를 엿볼 수 있다. 사람들이 출산과 관련된 야래자를 결코 해치려 하지 않는 意識에는 물론 所生의 父性에 대한 倫理的 配慮가 顯在하였을 것이나, 동시에 야래자 내면의, 위와같은 동기가 無意識으로 자리하고 있었다고 해야 하겠다.

야래자 설화의 또 다른 변용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를 볼 수 있다.

57) 금방울전, 世昌書館, pp. 5-31.

58) 靈存在의 肉體實現에 대하여는 다음에서 소상히 다룬 바 있다. cf. 黃涇江 「古代敍事文學의 原型的試考: ‘靈의 肉體再現’의 展開」(『韓國敍事文學研究』, pp. 15-25).

W. 禪師(寂忍)를 임신했던 당초, 어머니의 꿈에 어떤 胡僧이 나타났는데, 威儀와 모양이 엄숙하고 우아하였으며, 法服 차림으로 香爐를 들고 서서히 와서 寢床에 앉았다. 어머니가 의아하고 이상하여 이로 인해 꿈을 깨어 ‘필연 佛法을 지낼 아들을 얻어 장차 국사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⁵⁹⁾

위에서 꿈 부분 —— ‘밤에 威儀 있고, 優雅한, 禪(正體 不明의) 胡僧이 女人(寂忍禪師의 母)의 寢床에 와 앉았다.’고 한 대목은 그것을 꿈으로 설정했다뿐, 그 꿈의 내용 자체는 그대로 야래자형을 반복하고 있다. ‘이런 일(胎夢)이 있고, 여인은 임신하여 生男하였고, 비범했던 그 아이는 장성하여 國師가 되었다.’는 것이다. 위의 W.는 야래자형이 胎夢의 形象으로 굴절되어 실현된 것이다. 태몽으로 변용된 것 가운데는 W.의 경우와 같이 야래자가 여인과 성적 교섭을 갖는 것으로, 즉 父性으로 시사되는 경우도 있으나, 胎兒格인 靈的 象徵物이 여러 모습으로 직접 女體에 受容되고, 그 결과로 受胎하고, 出産하는 경우가 꽤 많다.⁶⁰⁾ 앞서 본, 日輪이 여인의 몸(배, 품)에 비치거나 들어옴으로써 잉태하는 形象(D., G., I.)이 胎夢으로 變移하여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즉,

X. 禪師(普照)를 잉태하던 해 어머니의 꿈에, 동근 해가 공중에 떠서 빛을 내려 배를 뚫고 지나갔다. 이 때문에 놀라 깨어 문득 임신하였음을 깨달았다. … (중략) … 이르 말미암아 해산의 괴로움을 이기고 아들을 낳는 경사를 맞았다. 선사는 체모가 커서 우뚝 선 듯하고, 기색이 윤택하여 河伯과 같았으며, 치아가 고르고, 금발이 특이하여 마을 사람들이 찬탄하고 친척들이 모두 놀라와 했다.⁶¹⁾

Y. 당초 그의 어머니가 日輪이 집에 들어와 배를 비추는 꿈을 사흘 밤

59) 娠禪師之初 母氏得夢 有一胡僧 儀形肅雅 衣法服 執香爐 徐徐行來 坐寢榻 母氏訝而 復異因茲而覺曰 必得持法之子 當爲國師矣(‘谷城 大安寺 寂忍禪師 照輪清淨塔碑文’, 李智冠 『譯註 歷代高僧碑文』, 伽山文庫, 1993, p. 74f.)

60) cf. 黃湏江, *op. cit.*, pp. 41-50.

61) 「長興 寶林寺 普照禪師 彰聖塔碑文」, *Ibid.*, p. 104.

꾸었는데, 이로 인하여 (一然을) 임신하고 泰和 丙寅(1206) 6월 辛酉에 낳았다.⁶²⁾*

Z. 당초 어머니의 꿈에 하늘이 붉어지면서 빨간 무리를 띤 日輪이 품 안에 들어왔다. 말미암아 임신하여 金怡를 낳았는데, 용모가 크고 일찍부터 큰 뜻이 있었다.⁶³⁾*

위의 X., Y., Z.는 太陽神이 女體에 投射함으로써 受胎, 出產하는, 夜來者型의 한 變容이었던 D., G., I.의 形象이 胎夢으로 變移, 再現된 경우다.

IV. 맺는 글

한 마디로 ‘夜來者 說話’라고 하였을 때 일단 세 가지 기본적인 모티프를 상징할 수 있었다. 첫째가 밤에 여인에게 정체불명의 사나이가 찾아와 동침한다는 것이다. 이는 여인과 異類의 化身인 남자와의 동침으로 요약된다. 동침의 時空——밤이나 密室등의 조건은 절대적이지 아니다. 여인의 處女라는 조건도 절대적이지 아니다. 경우에 따라 寡婦나 有夫女일 수도 있다. 남자의 본체는 언제나 非人間 즉 異類로, 여인에게 올 때는 사람(남자)으로 변신하고, 자신의 본체는 비밀에 붙이고 있다. 둘째가 남자의 정체를 탐색하여 확인하는 모티프다. 탐색에는 흔히 실을 썬 바늘을 이용하나, 그 밖의 방법도 있을 수 있다. 여인이 실을 썬 바늘을 몰래 남자의 옷이나 몸에 꽂거나 찔러 두고, 나중에 실간 데를 찾아감으로써 본체를 확인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바늘이나 쇠송곳을 몸에 꽂는 순간 이류는 기겁을 하고 도망하는 경우도 있다.(그것이 원인으로 죽은 상태에서 본체를 발견하게 되는 수도 있을 수 있다.) 정체를 확인 못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확인한 바 異類

62) 普覺國尊碑文.

63) 新增東國輿地勝覽, 卷 24, 安東都護府, 金怡.

의 정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진다. 긍정적인 영적 존재로 天神, 山神, 地神, 龍神, 死靈 등이 있고, 부정적인 영적 존재로 疫神, 惡靈, 木怪, 物怪, 魍魎 등이 있을 수 있다. 세제로 출생과 관련하여 소생의 모티프가 있다. 긍정적인 神靈인 경우 그와 여인과의 소생은 어떤 氏族이나 民族의 始祖로 받아들여지고, 그와 아울러 신령 자신도 그 사회 성원의 祭儀的 崇仰 對象이 되는 경우가 있다. 부정적인 영적 존재인 경우는 정체가 확인되면서 인간에 의하여 살해되거나 불태워진다. 이 경우는 여인과의 性關係에도 불구하고 소생이 없거나 소생 유무가 문제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사실 惡靈의 경우도 성관계의 결과로 소생이 있고, 또 그 소생은 부정적인 비상 인물로 그려질 수 있는 것이다. A.에서 지령이의 아들로 태어난 甄萱이 어떤 의미로는 後者의 경우가 될 수도 있다. 이 경우 담장 밑에서 발견한 夜來者의 實體는 큰 지령이로, 여인이 찌른 바늘이 허리에 꽂혀 있는 상태였다. 이것으로 지령이의 生死 與否를 가릴 수는 없다. 어쩌면 바늘에 찔려 죽어 있었던 것처럼도 보인다. 그러나, 說話者는 지령이의 生死에는 별다른 관심을 나타내고 있지 않다. 그보다는 그의 소생인 甄萱에 더 많은 관심을 표시하고 있다. 後百濟의 始祖로서 그에 어울리는 非常性을 강조하였다.(A., O.) 그럼에도 그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유보하고 있다.⁶⁴⁾ 이는 부정적 영적 존재——지령이의 소생이라는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이상 고찰한 바에 의하여 ‘야래자 설화’의 典型을 단일한 주제로 논단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夜來者型’은 설화자의 着目하는 바에 따라 그 주제는 얼마든지 다기할 수 있고, 또 실지로 다기하다. 多岐한

64) cf. 三國遺事, 卷2, 後百濟 甄萱. 앞의 記文은 甄萱을 後百濟를 개국한 영웅으로 형상화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天稟을 지닌 王者로서보다는 野心滿滿한 一介 亂世 驍雄으로, 결코 肯定的으로 다루고 있지 않다.

주제는 敘事面에서 多岐한 변용을 가져오게 하였던 바, 構成面에서 모티프의 取捨가 그렇고, 敘事 展開에서 作者나 說話者의 意識이 그 變容에 크게 관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양한 변용을 보인 ‘夜來者 說話’의 자료들에서 단일한 原初型을 추출한다는 것은 논리상으로는 가능할지 모르나 실제로는 불가능하며, 만약에 가능하다면 번복 가능한 가설로서만 말할 수 있을 뿐이다.

정신문화현상의 하나인 설화도 그것의 생성발전의 주요한 계기가 된 풍토적 조건을 어느 면에서든 반영하게 마련이다. 그러나, 이것을 절대화하여 이동이나 전파의 준거로 삼는 데는 상당한 무리가 따른다고 생각한다. 결국 想像의 領域에 속하는 說話나 古典小說같은 敘事形態에서 읽어낼 수 있는 ‘現實性’이란 것의 범위와 한계를 고려하지 않아서는 안된다. 많은 구체적 역사적 방증을 필요로 하는, 古代에서의 ‘移動’이나 ‘傳播’같은 역사적 사실 문제를 이로써 논단하기에는 그 부담이 과중하다는 생각이 든다.

다양한 敘事的 展開의 可能性 때문에 ‘夜來者型’의 여러 모티프(그 다기한 변용까지를 포괄하여)는 어느덧 小說 形象化에 관련되었고, 특히 인물 창조, 고전소설 나뭇의 틀은 주로 이로써 마련되었다고 하겠다. 본고에서는 ‘야래자’와 관련하여 영적 존재와 여인의 교혼, 잉태, 출산에 관한 제반 문제를 가능한 한 폭넓게 다루되, ‘靈의 受肉化’ 내지 ‘靈의 肉體實現’이라는 관점에서 조명하고, 이해하려 하였다.

〈略歷〉

1929年生. 平壤師範大學 國文科 및 檀國大學 國文科 卒業. 建國大學校 大學院 國文科 碩士 및 博士課程 修了. 文學博士. 檀國大學校 專任講師, 助教授, 副教授를 거쳐 教授歷任. 現在 名譽教授. 同校 附設 東洋學研究所 所長, 國語國文學會 代表理事, 韓國古典文學研究會 會長 歷任.

〈著書〉

『韓國敘事文學研究』(檀大出版部), 『新羅佛教說話研究』(一志社), 『朝鮮王朝小

說研究』(檀大出版部), 『한국문학의 이해』(새문社), 『韓國의 神話』(檀大出版部), 『壬辰倭亂과 實記文學』(一志社) 等.

〈論文〉

「韓國古代敘事文學의 Archetype」(『文湖』, 3輯, 1966), 「檀君神話試考」(『白山學報』, 3輯, 1967), 「朴赫居世神話의 一研究」(『新羅伽倻文化』, 3輯, 1971), 「日本神話속의 ‘韓國」(『韓國學報』, 20輯, 1980), 「‘山幸·海幸’神話의 歷史的文脈과 神話的 構造」(『東洋學』, 10輯, 1980), 「日本에 있어서의 神話意識의 展開過程 研究」(『東洋學』, 14輯, 1984), 「日本에 있어서의 神話再現」(『張漢基博士華甲紀念論文集』, 1990) 等.